

비즈 프리즘 | 이통사 '해외로밍 전쟁' 불꽃

“해외에서도 국내요금으로 데이터 이용하세요”

SKT 광·사이판 연말까지 무료 제공
 현지 맛집·쇼핑몰서 멤버십 할인
 KT·LGU+ 완전 무제한 상품 출시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이통통신 기업 간 해외로밍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에서 쓰던 데이터를 현지에서도 사용하는 SK텔레콤의 'T·광·사이판'(왼쪽)과 하루 1만4300원으로 속도·용량 제한없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KT의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프리미엄' . 사진제공 | SK텔레콤·KT

이통사의 해외로밍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들어 음성로밍 서비스에 초당요금 도입, 속도·용량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 출시, 국내 음성통화 요금 적용 등을 경쟁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쓰던 데이터를 주요 해외 여행지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까지 내놨다.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3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고, 웹서핑이나 메신저, 길찾기 등으로 해외에서의 데이터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3년간 데이터 로밍 사용량이 매년 평균 50%씩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광·사이판패스'를 19일 출시한다. 광과 사이판에서 국내요금 수준으로 데이터와 음성을 이용하고

멤버십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매일 데이터 1GB를 무료 제공하고, 데이터를 소진하면 400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만 이용하면 별도의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실상 무료인 셈이다.

프로모션이 끝난 후에도 국내서 이용하는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400Kbps 속도로 추가요금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음성통화는 매일 3분 무료이며, 이후엔 국내 요금(1.98원/초)이

적용된다. 문자는 무료다. 이밖에 현지 맛집, 관광지, 쇼핑몰에서 T·멤버십 할인도 받을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광·사이판 이통사 IT&E에 약 35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3월 매일 3분 무료 통화와 음성로밍 초단위 과금, 데이터 종량 단위 요금 인하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안심 T로밍' 서비스를 출시했고, 6월에는 지역 맞춤 요금제 미주패스, 유럽패스도 출시했다.

경쟁사들도 해외 로밍 혜택을 강화했



다. KT는 5월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와 똑같이 초당 1.98원으로 하는 '로밍 ON'을 미국과 중국, 일본에 내놨고, 이후 10여 개국 이상으로 확대했다. 7월엔 40개 국가에서 하루 1만4300원으로 속도와 용량 제한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도 5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선보였다. 37개국에서 하루 1만3200원에 데이터와 터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12일

코스피지수	2282.92	↓	-0.28
코스닥지수	826.33	↑	+6.10
日 닛케이 지수	2만2604.61	↓	-60.08
中 상하이 종합	2656.11	↓	-8.6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9	↓	-0.03
환율 (원·달러)	1129.0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3363.06	↑	+30.49

아시아나 기내식 파동 마무리 새 공급업체 완료...서비스 재개

두 달간 이어졌던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의 기내식 파동이 마무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 기내식 공급업체 이전작업을 마치고 이날 OZ731편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7월부터 기내식을 공급받던 샤프도 엔코와의 임시계약을 종료하고, 게이트코 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GGK 기내식을 처음 서비스한 항공편은 오전 7시30분에 인천공항에서 호치민으로 출발한 OZ731편으로 이날 하루 81편(인천/김포발 기준) 항공기에 3만여명의 기내식을 공급했다.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GGK는 2만5550㎡ 규모의 2층(지하1층, 지상2층) 시설로 하루 최대 6만식까지 생산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디자이너 협업·프리미엄 소재... TV홈쇼핑 '패션 전쟁'

홈쇼핑 매출 효과...차별화 나서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서 TV홈쇼핑 업계의 패션 전쟁이 불붙었다.

상반기 히트상품 절반이 패션일 정도로 홈쇼핑 매출에서 패션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부문이다. 또 가을·겨울 시즌이 패션의 성수기여서 어느 때보다 판매 경쟁이 뜨겁다. 올해는 프리미엄 소재와 디자이너와 협업 등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으로 패션 PB(자체브랜드)의 매출 증대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패션 PB 'LBL'의 소재와 상품을 다양화했다. 지난해 14종이던 상품을 올해 21종으로 늘렸다. 히트상품인 캐시미어 니트는 물량을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하고 터키산 무스탕과 유럽산 사가밍코트도 출시한다.

현대홈쇼핑도 프리미엄 패션 PB '라씨엔트'의 신제품 알파카 코트, 플리즈 배색



롯데홈쇼핑 패션 PB 'LBL'(왼쪽)과 배우 김지호가 모델로 활약 중인 현대홈쇼핑 패션 PB '라씨엔트'. 사진제공 |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원피스 등을 내놓았다. 이밖에 GS홈쇼핑은 충성고객이 많은 패션 PB 'SJ와니', '쏘울', '모르간', 'K by 김서룡' 등을 리뉴얼했고, CJ ENM 오쇼핑 부문은 지춘희 디자이너와 손잡고 '지스튜디오'를 론칭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TV홈쇼핑 패션은 저가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요즘은 가성비 있는 프리미엄 옷으로 바뀌었다"며 "고품질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의 자체 패션 브랜드가 각광받고 있다"고 최근 변화를 소개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카오톡 동네음식점 주문도 OK

카카오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문할 수 있던 '카카오톡 주문하기'(사진) 서비스를 12일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했다. 차킨, 피자 등 5개로 한정된 카테고리도 중식, 한식, 간식·분식, 족발·보쌈, 야식, 일식·회, 패스트푸드 9개로 늘렸다.플러스친구를 추가하거나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주문하기'를 누르면 된다. 결제 후 '매장접수'나 '배달출발'같은 진행 과정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5월부터 진행된 사전점검 예약에는 2만 5000여 사업자가 신청해 현재까지 약 1만개 사업자가 계약을 완료해 입점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입점비나 수수료 없이 월3만원(부가세 별도)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 연말까지 입점계약 시 최대 60일 무상기간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보인다.

김명근 기자

추석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베트남·러시아 급부상

혼행족, 이동거리 긴 유럽지역 선호 국내는 KTX 개통 등 강원지역 인기

해마다 찾아오는 해외여행의 빅시즌 추석연휴가 다가왔다.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석연휴에 국내외 해외를 찾은 한국 여행객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큰 폭으로 방문객이 늘어난 해외여행지는 베트남이었다. 2015년 국가별 순위 13위에서 2017년에는 3위를 기록했다. 베트남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전통적인 여행명소인 일본과 미국 밖에 없었다.

베트남 여행은 다남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남 외에 호이안과 하노이의 인기도 같이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추석 연휴에도 많은 한국인 여행객이 베트남을 찾을 전망이다.

아시아 외 여행지에서는 러시아와 스페인의 인기가 높아졌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인기 덕분에 2016년 처음 3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페인 역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2016년부터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두 곳 모두 올해 역시 전년 대비 더 많은 여행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혼행족, 연휴 기간 아시아보다 유럽 많이 찾아

연휴기간 여행 행태를 보면 최근 봄을 이루는 나홀로 여행, 즉 '혼행'의 경우 장점인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 먼 거리의 여행지를 찾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을 찾은 혼행족 비율은 전체 여행객의 2배 가량 높았다. 최근 2년간 혼행족 인기국가 순위 15위권의 절반이 유럽으로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순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아시아 지역을 찾은 혼행족은 전체 여행객보다 적었다.

한편, 해외여행 못지않게 연휴기간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제주, 서울, 부산, 강원, 경상, 전라 등 지역 순으로 많이 찾았다. 특히 강원 지역은 2015년 6위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순위	2015	2016	2017
1위	일본	일본	일본
2위	미국	미국	미국
3위	태국	대만	베트남
4위	필리핀	태국	태국
5위	이탈리아	베트남	캐나다
6위	괌	이탈리아	대만
7위	대만	중국	괌
8위	홍콩	필리핀	이탈리아
9위	중국	괌	필리핀
10위	프랑스	홍콩	프랑스

자료제공|익스피디아

는 4위로 상승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강선 KTX 개통 등의 영향으로 강릉, 속초, 양양 등 주변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교육·퍼즐은 13면에 실습니다.

